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29(금) ~ 2023.10.5(목)

제공일시 2023 10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29(금) ~ 2023.10.5(목)

제공일시 2023 10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美-EU, 정상회담 통해 철강 관세 논의

- EU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미국과 EU가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관세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세계 철강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린 스틸을 포함한 녹색 제품 생산 촉진,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10월 31일 마감하는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합의(GASSA)'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
- 아울러, 두 정상은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제재 우회 방지 방안도 논의할 계획
- 다만, 미국은 EU와 같은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EU 제안 수용 시 CBAM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미국 정치 지형상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철강금속신문 2023.10.04) 엄재성 기자

### 2. EU,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수출 규제 추진...대중 '디리스팅' 본격화

-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작함
-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수출 및 투자 제한 검토로, 유럽의 대중 전략 핵심인 '디리스팅(위험 제거)'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됨
- EU는 27개 회원국과 함께 연말까지 위험성 평가를 마친 후, 내년에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함

(헤럴드경제 2023.10.04) 손미정 기자

### 3. 中 장비 규제 이달 만료...삼성·SK하이닉스 현지 신규 투자, 당분간 'NO'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 기간 만료가 임박함
-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사업 안정화를 위해 현지 공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다만, 중국 내 신규 투자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4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들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용해 중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더그루 2023.10.04) 정예린 기자

## 1. [단독] 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금융위, 17일 발표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 공시'가 예정보다 1년 늦춰짐
- 주요 골자는 17일, 최종 로드맵은 내달 발표됨
- 기업의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선불리 시행했다가 후폭풍만 거셀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임. 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에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열고, 'ESG 의무공시 연기' 관련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
- 'ESG 공시제도 로드맵' 최종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
- 금융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 시행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

(이데일리 2023.10.05 최훈길 기자)

## 2. "그린워싱 막는다"…금감원, ESG 펀드 공시 기준 마련

- 금감원이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해, 이달 내 서식 개정을 완료할 예정
-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명칭과 관계없이 투자설명서상 투자목적과 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됨
-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를 명확히 기재하고,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특히, ESG 평가 방법은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절차와 결과 활용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금융당국은 이달 내 관련 증권신고서 기준 서식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시행할 예정

(뉴시스 2023.10.05 우연수 기자)

## 3. "제값 받고 납품한다"…'15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됨
-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상호 합의 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함
-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무사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

(뉴시스 2023.10.04) 이수정 기자

### 1. 옥시덴탈, ADNOC, 아랍에미리트 메가톤급 탄소포집시설 파트너

- 에너지 대기업 옥시덴탈과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ADNOC가 아랍에미리트에 연간 100만톤 규모의 직접공기포집(DAC)시설 건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연구를 시작하기로 협약 발표
- 이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큰 DAC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미국 밖에서는 최초의 메가톤급 DAC 시설이 될 전망
- 지난 8월 양사는 미국과 UAE의 CCUS사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옥시는 지난 8월 '카본 엔지니어링'을 11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 옥시의 탄소포집 자회사인 원포인트파이브는 텍사스에 스트라토스를 건설 중이며, 이 시설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DAC시설임
- 스트라토스에는 카본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DAC기술이 적용될 전망

(ESG 투데이 2023.10.04) Mark Segal 기자

### 2. "애플 전 제품 탄소 중립으로" 팀 쿡 선언한 이유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30년까지 애플의 모든 제품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DPA 통신은 4일(현지시간) 팀 쿡이 "이 시대에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쿡 CEO는 "2030년까지 애플의 생산 및 공급망,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까지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경제 2023.10.04) 박근아 기자

### 3. 일본, 마이크론 공장에 1920억 엔 추가 지원...반도체 경쟁 가속

-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크론 공장에 최대 1920억 엔(약 1조7409억 원)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마이크론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최대 500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에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일 계획이라고 화답함

(이투데이 2023.10.03) 고대영 기자

### 1. 포스코 '고망간강' 암모니아 운송·저장탱크 소재로 쓴다...국제표준 등재

-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이 암모니아(NH3) 운송과 저장탱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해양수산부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제9차 선박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포스코 고망간강이 선박의 암모니아 저장·운송에 적합한 소재로서 국제표준에 등재됐다고 4일 밝힘
-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 기준이 국제 규정으로 채택됨
- 포스코가 2010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강은 10~30%의 망간을 함유한 합금강
- 이번 승인을 계기로, 고망간강도 LNG와 암모니아 운송, 저장탱크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암모니아 저장에 적합한 소재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절차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법을 협약 기준에 반영함

(이투데이 2023.10.4) 광도훈 기자

### 2. 배민, 재활용률 높은 플라스틱 용기 확대

- 배달의민족이 재활용에 용이한 플라스틱 용기를 확대하기로 함
-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용기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SK지오센트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힘
- 양사는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의 경제성을 높이고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우선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 용기를 개발, 유통하기로 함

(서울경제 2023.10.6) 황동건 기자

### 3. 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구축

- SK오션플랜트가 5일 'SK Ocean 해상풍력 Alliance'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 'SK Ocean 해상풍력 Alliance'에는 상상인인더스트리, 동국S&C, 삼일C&S, 건화공업, 유일중공업, 금강중공업, 원앤피 등 24개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 기업들이 참여함
- SK오션플랜트는 이번 협약으로, 총 185만㎡(약 56만평)의 사외 제작부지를 추가로 확보, 1.5배 수준의 생산능력 증설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힘

(여성소비자신문 2023.10.6) 이지은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9.29(금) ~ 2023.10.5(목)

제공일시 2023.10.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 캘리포니아주, 해상 풍력발전을 향한 중요법안 통과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년 안에 해안에 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그 첫걸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카나리아 미디어가 27일(현지시각) 보도함
-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양의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초기 해상풍력 산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
- 에너지 산업 단체들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중앙 조달 메커니즘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해상 풍력 야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함
-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의 최신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해상 부유 풍력 4700메가와트(MW), 지열 발전소 2000메가와트(MW), 장기 에너지저장장치 2000메가와트(MW)를 확보하여 전력망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주의 목표를 충족하려고 함
- 캘리포니아는 이미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및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축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전력이 부족할 때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다양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 특히 해상 풍력은 밤에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함
- 이는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 동안 늘어나는 전력 공급 격차를 메우기 위해 배터리 및 기타 ESS(에너지 저장장치)에 지출해야 하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
- 이번 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법안은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및 기타 동부 해안 주에서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의무 규정에 따라 먼저 추진됐던 법안
-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은 부유식 풍력 터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들보다 실행하기가 훨씬 더 어려움. 부유식 풍력 터빈 기술은 해저에 고정된 터빈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임
- 2022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부유식 풍력 터빈은 171메가와트(MW)에 불과하며, 이는 고정 바닥 해상 풍력 64.3기가와트(GW)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
-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DOE)의 추산에 따르면, 부유식 해상 풍력의 잠재력은 고정 바닥 해상 풍력 터빈의 잠재력을 능가함. 얕은 해안 바다보다 깊은 바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임
- 전문가들은 부유식 해상풍력의 송전 인프라 구축이 해상 풍력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미국 롱비치 항구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의 홈볼트 항구는 모두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을 조립하고 예인할 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할 계획을 추진 중
-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최소 목표인 2~5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임팩트는 2023.10.4) 홍명표 기자